

【P4-11】

학령전 아동의 Weight for Height Z-score로 판정된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윤지영^{1*}, 신정원¹, 엄순희², 장남수¹. ¹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 ²구리시 보건소

영유아기는 아동의 성장과 발육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며 이때의 영양관리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 33개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2세에서 6세 어린이들 444명(남자 253명, 여자 19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신장에 대한 체중(weight for height Z-score ; WHZ)을 이용하여 WHZ가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의 median-1S.D. 미만(Z-score<-1)에 속하는 아동들을 저체중군(38명), median ± 1S.D. 이내(-1 ≤ Z-score ≤ 1)에 속하는 아동들을 정상군(320명), median+1S.D. 초과(Z-score>1)에 속하는 아동들을 과체중군(86명)으로 분류한 후 각 군별로 비만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는 SAS version 8.2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아동들의 평균 연령 · 신장 · 체중은 각각 3.96 ± 1.10세, 104.33 ± 7.62cm, 17.85 ± 3.20kg, 평균 허리둘레 · 엉덩이둘레 · 상완위둘레 · 삼두근피부두겹두께는 각각 50.71 ± 3.97cm, 56.41 ± 4.38cm, 16.80 ± 1.60cm, 13.09 ± 4.40mm였다. 평균 WHZ · weight for age Z-score · height for age Z-score · body mass index(BMI)는 각각 0.23 ± 1.05, 0.33 ± 1.16, 0.14 ± 0.93, 16.31 ± 12.55kg/m²였다. 과체중군의 어머니의 평균 연령(33.91 ± 3.34세)은 저체중군의 어머니의 평균 연령(32.03 ± 4.32)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23). 그리고 과체중군의 아버지의 평균 BMI(23.95 ± 2.91kg/m²)도 저체중군의 아버지의 평균 BMI(22.84 ± 2.56kg/m²)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38). 월평균 가계 총수입은 과체중군(201~300만원)이 정상군과 저체중군(101~200만원)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37). 출생체중의 경우 과체중군과 정상군의 체중(3.1~3.5kg)이 저체중군의 체중(2.6~3.0kg)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어머니와 아동의 활동량을 6개 문항, 3점 척도법으로 점수화했을 때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17, P<0.0001). 어머니의 식생활태도를 20개 항목, 5점 척도법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식습관을 15개 항목, 4점 척도법으로 점수화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어머니의 식생활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식습관 점수도 유의적으로 높았고(r=0.116, P=0.016), 어머니와 아동의 식습관 점수 사이에도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550, P<0.0001). 과체중군의 어머니가 다른 두군의 어머니보다 식사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4). 정상군이 저체중군과 과체중군보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5). 과체중군이 정상군과 저체중군보다 식사속도가 빠르고(P=0.001), 과식을 더 자주 하고(P=0.0004),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4). 그리고 저체중군이 다른 두군보다 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평균 연령, 아버지의 평균 BMI, 월평균 가계 총수입, 출생체중, 어머니와 아동의 식사속도, 과식여부, 비타민이나 영양제 보충 여부가 과체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학술용역사업 지원에 의해 일부 수행됨)